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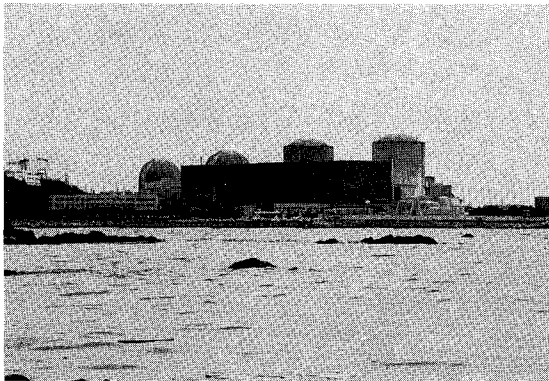
한국 전력 공사

고리원전3호기 한주기무정지안전운전 달성 국내 원전 산업 기술축적 기여

지난 '88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주기무정지 안전운전(OCTF : One Cycle Trouble Free)을 달성했던 고리3호기(가압경수형, 950MWe)가 지난해 4월 5일부터 407일간의 한주기무정지안전운전을 달성하고 5월 16일 02시 40분에 제11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을 정지하였다.

이번 고리3호기의 한주기무정지안전운전으로 고리원자력본부는 총 8번의 한주기무정지 안전운전을 달성하게 되었고, 지난해 3월 고리1호기의 한주기무정지안전운전을 시작으로 고리본부는 전 호기(4기)가 연속하여 한주기무정지안전운전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 원전의 2세대인 고리3호기는 탈 유전원과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 95만kW급 원전으로, 한전이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분할발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자재의 국산화는 물론 국내 원전산업의 기술축적에 기여하였다.

한편, 이번 주기에 고리3호기가 생산한 전력량은 약 95억kWh로 약 160만톤의 액화 천연가스 대체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석탄 대비 약 8백만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계획 예방정비기간 중 고리3호기는 연료교체와 저압터빈회전자교체등 설비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과 예방정비를 실시한 후 원자력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각종 법정검사를 거쳐 오는 7월 19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기술(주)

세계최고 원전위험도 정량화엔진 개발 국제 경쟁력 향상 크게 기여

한국전력기술은 최근 세계에서 최고의 원자력발전소 위험도 정량화엔진을 개발하여 IMF 시대에 10만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와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의 PSA사업팀(처장 강선구)이 개발한 이 엔진은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유럽, AECL등 많은 전력회사들이 그 성능을 인정하면서 한기의 PSA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기술 용역을 수주할 경우, 자체 개발한 PSA전산코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ORTE로 명명된 이 정량화엔진은 기존의 세계적인 모델이었던 스웨덴의 RSAT보

다 연산 처리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현재 미국 EPRI사용자 그룹의 전산코드 공급사인 SAIC社와 5대5 분할방식으로 FORTE 판매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분분할을 6대4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난해 11월에 맺었던 판매갯수를 3개에서 지난 3월에 무제한으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평균 3만달러인 FORTE를 이미 미국의 Florida Power社 및 Common Wealth Edison社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미국의 30개 전력회사에 판매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량화엔진 개발을 발판으로 발전소 기기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변화를 예측,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인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등의 응용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지역난방공사

수원 지역난방 열공급 시설 준공

8만3천여세대 난방열 공급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29일 동수원과 북수원 지역의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한 열병합설비 준공식을 갖고 이 지역 8만3천여 세대에 본격적인 난방열공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지난 94년 11월부터 4년동안 총1천6백49억원을 투입해 준공된 수원의 열공급시설은 동수원 영통·권선지구, 북수원 천천·정자



지구 등의 7만여세대를 비롯해 구 한일합섬, 대한방직 지구등 공급예정지구 1만3천여세대 등 8만3천여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게 된다.

수원 지역난방 시설은 시간당 4만3천2백 kW의 전력생산능력과 71Gcal의 열생산을 위한 발전기, 1백80톤의 주보일러와 1백50톤 용량의 열전용 보일러 2기 등의 주요 설비로 오는 9월 완공예정인 수원시 자원 회수 시설의 소각열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폐자원회수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수원 난방열공급 설비는 열병합발전을 이용해 에너지이용효율이 84%에 이르고, 기존 중앙난방과 비교할 경우 연료사용 절감률이 57%에 이르는 등 8만여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함으로써 연간 8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절약으로 1천5백만달러의 에너지수입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는 이미 지난해 6월 부분적인 열생산 시설 준공으로 영동, 권선1, 정자, 천천1지구의 신도시 아파트 3만여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해 오고 있다.

한국석유개발공사

T-2 석유제품 비축기지 준공

휘발유 등 2백50만배럴 저장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제2차 석유비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T-2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완료, 지난 5월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경기도 용인시 호동일대 약 10만여평의 부지위에 건설된 T-2 석유비축기지는 휘발유, 등·경유등 석유제품 2백50만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저장탱크 11기(휘발유 4기, 등유 2기, 경유 5기)와 출하설비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등 비상시 비축유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1, 2차 방유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환경보호 측면의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었다.

이번 T-2 비축기지의 준공으로 유사시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건설중인 U-1(전남 여천), T-5(전남 곡성) 기지가 완공되는 내년 6월 제2차 석유비축 기지건설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지난 80년대의 제1차 비축계획에



의한 비축용량을 포함, 총9천1백16만배럴의 비축유(원유·제품포함)를 확보하게 된다.

S K (주)

북경 국제도로·공항노면 기술대회 참가

중국 마케팅에서 유용 활용 기대

SK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도로·공항 노면 기술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도로, 공항 포장 관련 국제회의로서 매2년마다 개최되는데, 1, 2차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중국교통부 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 중국공로학회(公路學會) 주최로, 대규모 SOC투자를 진행중인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각성 교통청장 등 주요 인사와 포장 관련 주요인사, 세계포장 관련 기업, 학자, 전문가 등 약 1천2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포장 공법, 포장 기자재, 도로 보수·유지, 신기술 등에 대해 30여개국 2백4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5천평방미터의 전시공간에 포장 관련 각종 기자재와 신기술이 전시되었다.

특히 전시회에서 아스팔트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 Shell, Esso, Caltex등 국내외의 80여개 기업이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며 열띤 홍보전을 펼쳤다.

SK에서는 대덕기술원 차순만 박사가 '국내 슈퍼팔트(고분자 개질 아스팔트) 포장사례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시회 부스를 운영하여 일반 아스팔트, SBS아스팔트등



SK제품을 소개하고 카달로그를 배부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중국 전역의 아스팔트 최종 소비자에게 SK와 SK아스팔트 제품을 짧은 시간내에 인상깊게 홍보하였으며, 금번 대회에 참가한 중국 유수의 연구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아스팔트는 기술상품인만큼 금번 대회에서 SK의 아스팔트 기술력을 공인받은 것이 최대의 효과이며, 이는 향후 중국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정유(주)

충남 대산 BTX공장 본격 가동

출매목표 3조4천5백억원

현대정유는 지난 5월 7일 총 2천5백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BTX공장을 준공함에 따라 원유정제에서 석유화학 원료생산까지 일관생산체계를 마련했다.

충남 대산공장장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정주영 명예회장 등 약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석유화학 제2콤플렉스 준공식을 겸

해 치뤄진 이날 준공식에 따라 현대정유는 연산 40만톤규모의 벤젠(Benzene)과 파라자일렌(P-Xylene)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됐다. 현대정유가 97년말 완공해 시험가동 해왔던 이 공장은 2년여기간동안 총 2만6천평부지에 연 동원인원 45만명을 투입했다.

세계적 플랜트 엔지니어 업체인 미국의 UOP사의 최신 특허공정을 도입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춘 이 공장은 파라자일렌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순도가 한단계 높은 99.85% 이상을 기록하고 벤젠도 99.99%의 고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파라자일렌과 벤젠은 80%이상을 미국, 중국, 대만, 동남아 등지에 수출해 연간 약 1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릴 예정이다.

또한 올해 국내 유화학업체의 파라자일렌과 벤젠의 총 생산규모가 각각 3백30만톤과 2백27만톤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돼 그동안 수급물량의 부족에 따른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적극적 해외 마케팅 전략을 펼 수 있게 됐다.

현대정유는 이번 BTX공장의 상업가동으로 약 2천2백억원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 3조1천억원보다 10% 증가한 3조4천5백억원으로 예상했다.

또한 자체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중질 나프타를 개질한 리포메이트를 원료로 폴리에스터원료인 파라자일렌과 합성수지의 원료인 벤젠을 생산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사업다각화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디지털 계전 계측장비 개발 성공 계전기 기능 하나로 통합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수전설비 또는 부하설비의 전압, 전류, 지락전류 등을 검출하여 운전상황을 알려주는 계전기의 여러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계전 계측장치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했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특수기능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등 최대 7개의 동작기능을 하나의 계전기로 종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계전기중 최다 동작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중전의 결상검출 방식을 위상검출방식으로 개선하여 오동작률을 최소화시켜 수전설비는 물론 확실한 전동기 보호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디지털 계전 계측장비는 디지털 계전기의 모니터에 삼상전압, 전류 및 위상을 표시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별도의 전압계 및 전류계를 설치하지 않고도 전압과 전류를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장치개발로 수용가의 전압, 전류등 검출부별로 여러개의 계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감소시키고, 이에따른 설치비용 등을 절감시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측기 설치면적의 최소화로 수·배전반 제작의 편리성을 추구할 예정이다.

한국원전연료(주)

제6회 노심 관리 기술발표회 개최 실무담당자 기술교류 증진 도모

한국원전연료는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수안보 한전 생활연수원에서 제 6회 노심 관리 기술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주최측인 한국원전연료를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등 원자력 산업계,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 등 학계,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력연구원 등 연구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원전연료 5편, 한국전력공사 6편,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학계에서 4편 등 총 15편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원자력 관련 기관간에 원전 노심 관리, 노심 설계 및 규제 기관 인허가 실무 담당자간의 기술 교류를 통한 원전 노심 안전성 제고, 노심 관리 최적화 및 기술 능력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국원전연료와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한국중공업(주)

원전 핵심설비 폭발접합기술 개발

「IR52 장영실상」 수상

한국중공업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설비로서 증기발생기 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폭발접합기술'로 지난 5월 28일 강창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이 기술은 화약이 폭발할때 생기는 높은 압력을 이용, 튜브와 튜브시트(Tube Sheet)를 접합시키는 기술로 증기발생기 및 고온 급수 가열기, 가압기 등 각종 발전설비와 산업설비에 들어가는 주요 설비를 제작할때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확관에 따른 불량률이 적고 한차례 폭발 확관작업으로 100개 이상의 튜브를 동시에 접합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수입을 이용한 확관방법보다 작업속도가 5배이상 빨라 한해에 만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한중은 이 기술을 실공정에 적용, 지난해 9월 영광 5호기용 증기발생기의 폭발확관작업을 착수 15일만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앞서 제작됐던 울진원자력 증기발생기 확관 작업시간이 한달정도 걸린데 비해 절반으로 단축된 것이다.

기술개발에 참여했던 심상한 생산기술개발팀장은 "기술개발에만 3년 6개월, 상업화에 1년등 전체적으로 5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소요됐다"며 "세계적으로 폭발접합기술 시장이 약 4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중은 영광원자력 3·4호기 제작시 미국의 ABB-CE社로부터 도입한 폭발확관기술과 이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폭발접합기술을 개량,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이 분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5회 원전기기 건전성 워크숍 개최

30여개기관 전문가 200여명 참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덕 연구단지 내 본원에서 대한기계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원전 기기 건전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30여개 기관의 원자력 및 기계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50여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국내 전력기술 기준(KEPIC)의 실제 적용에 관한 특별회의와 최근 개발된 기기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의 시연회도 가졌다.

원전 기기 건전성 워크숍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원전 배관 등 원전의 핵심 부품과 이들 부품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파괴 검사 방법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의 연구결과, 현장경험, 안전현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일반 학회가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이번 워크숍은 현장과 연구소·대학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어 원자력 산업체 전반에서 참여도 및 호응도가 매우 높다.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교육 실시 에너지정보 강의·토론 및 현장견학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동안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98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기본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역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교육은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교육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에너지 일반개요 및 세계 에너지동향,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체계, 에너지 자원정책 방향, 국가 및 지역에너지 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제도, 전력 산업정책, 가스사업정책, 지역에너지 추진사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에 관한 강의와 분임토의 그리고



새한미디어 충주공장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지역에너지 연수교육은 4차에 걸쳐 총 230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포스코개발(주)

국내 최초 종합 건설업체 부상 21세기 세계최고 기업으로 성장

포스코개발은 미국의 백텔사와 같이 94년 포철의 건설본부, 엔지니어링, 거양개발을 합병해 국내 최초로 설계에서부터 기계설비, 건설에 이르는 종합건설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고학봉 사장의 경영방침은 「완벽한 시공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최근 경북지역 경제와 건설업체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과 제32회 조세의 날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21세기 세계 제일을 꿈꾸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포스코개발은 기업이 철강회사인 만큼 주로 강구조물 수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발해 강남 사옥건설에 참여한 것을 비롯 최근 부산 광안대교를 건설중에 있고 앞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금년도 매출목표를 1조원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포스코개발은 종합건설업체를 리드하는 업체답게 30여개의 전문면허를 취득하고 최근에는 가스시공업 1종면허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에너지관련 사업분부는 현재 포항과 광양에 LNG복합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3개 대형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해 오고 있다.

또 지난 95년에 발족된 에너지사업본부는 현재 진행중인 대형발전소 건설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LNG인수기지, 가스배관망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철사업과 관련된 해외발전소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척할 계획이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성원탄광 폐수정화시설 준공

오염물질 제거 수질 개선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성원탄광 폐수정화시설 설치공사가 착공 13개월만인 지난 5월 4일 준공되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공사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자체 개발한 자연정화공법식 설계에 따라 강원도 소재 유림실업이 시공을 하였다.

지난 91년 폐광된 성원탄광 폐갱구에서는 그동안 철등 중금속에 오염된 황갈색의 광산 폐수가 낙동강 상류인 황지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폐수정화시설의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3억4천5백만원을 들여 하루 2,000m³의 폐수처리능력을 가진 자연정화식 광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갱내 유출수에 포함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 태백시내를 흐르는 황지천의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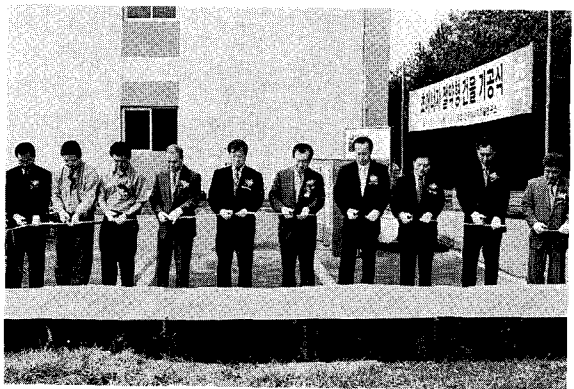
초 에너지절약형건물 기공식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절약형 건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4월 29일 연구소내 신축부지에서 지상 3층 3백30평 규모의 초에너지절약형건물 기공식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간 국내 건물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와 시공설계기술을 토대로 74가지 에너지절약 요소기술을 적용 시공하게 된다.

건축부문에는 이중외피, 광선반동 23가지 기술, 기계설비부문에서 태양광발전, 지중배관을 통한 예열과 예냉효과를 얻을 수 있는 Cool Tube System 등 35가지 기술, 전기설비부문에는 조명제어장치 등 16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시공함으로써 설계에너지소비량(DEC : Design Energy Consumption)이 74 Mcl/m².y로 초에너지절약형건물이 된다.

이 건물은 올해 11월 중순 준공되는데 앞으로 환경과 에너지절약기술이 공존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미국에서 석유화학공정 설비수주

국내 최초 화공설비류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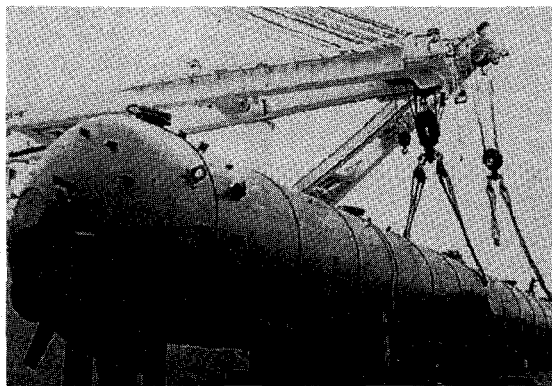
현대중공업은 석유화학공정 핵심설비인 화공설비류를 미국에서 수주, 국내기업중 최초로 미국의 화공설비류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22일 세계 굴지의 석유화학업체인 미국의 솔루티아사로부터 미국 휴스턴에 건설할 아크릴로니트릴(AN) 생산공장에 설치될 화공설비류인 리액터와 스트리퍼 약 1천t짜리를 8백50만달러에 수주했다.

솔루티아사는 각종 화학제품 및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연간 매출 30억달러의 세계적인 석유화학 회사이다.

현대중공업이 이 회사로부터 수주한 기기들은 아크릴 섬유와 ABS수지, 합성고무의 원료인 AN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설비이다.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다로운 설계와 기술력이 필요해 그 동안은 미국, 유럽의 일부 업체에서만 수주해 왔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화공설비류 제작 및 시공능력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판단, 동남아시아 위주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남미의 화공설비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했다.

포항종합제철(주)

중국 아연도금강판공장 준공 가동

상해 張家港에 연산 10만톤규모

포항종합제철은 지난 5월 25일 중국 江蘇省 張家港市에서 이구택 사장, 이춘호 부사장, 고헌봉 포스코개발 사장, 謝家賓 蘇州市 당부서기, 沈文榮 沙鋼그룹 총경리 등 양측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연산 10만톤 규모의 아연도금강판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96년 11월 포철 90%, 중국 沙鋼그룹 10%의 합작비율로 자본금 2천3백74만달러 규모의 합작법인인 張家港浦項鋼板有限公司(대표 이형택)를 설립하고, 본 공사에 들어간지 18개월만에 준공된 이번 아연도금강판공장 합작 건설사업에는 총 3천8백44만 달러의 투자비가 소요됐다.

장가항아연도금강판공장 준공은 중국내 시장 선점, 수출기반 확대, 안정적인 냉연제품 수요가 확보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포철이 오는 7월 화남지역 거점인 順德市에 10만톤 규모의 아연도금강판공장을 준공하면 이번에 준공한 화동지역의 장가항아연도금강판공장과 97년 9월에 준공한 화북지역의 대련아연도금강판공장과 함께 화북·화동·화

외연사 동정

남 등 중국의 3대 전략거점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이번 장가항아연도금강판공장 시공은 포철의 철강 E&C 전문 계열사인 포스코개발에서 맡아 기본설계와 기계·전기 분야의 상세설계에서부터 관련설비의 공급과 시운전, 감리에 이르기까지 공사 전반을 담당했다.

한편, 해외 현지생산 체제구축과 판매거점 확보를 위해 주력해 온 포철은 동남아 경기침체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와 고금리, 고환율 등 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해외투자사업은 양적 확대보다는 국내 설비와의 연계로 상호보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고 현재 진행중인 해외투자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해 조기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순회세미나에는 2백93명의 주유소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전 20년기념 가두캠페인 전개
6백여명 참가 전국적 실시

쌍용정유(주)

주유소경영자 대상 지역순회 세미나
비용절감등 자구 노력 대안 소개

쌍용정유는 최근 주유소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IMF 체제하의 주유소 운영'을 주제로 지역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순회 세미나는 주유소의 비용절감과 유위수익 창출, 판매강화 방안 등 자구 노력 대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순으로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은 현장 운영사례 발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4월 2일 수원지역에서 첫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대전·광주·부산·대구·원주·서울에서 차례로 열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4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인 고리 1호기 가동 20년을 맞아 원자력발전 홍보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오전 7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재단 임직원 뿐만 아니라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회원 600여명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과천 정부청사 앞, 삼성동 무역센터 앞, 대전역 등지에서, 그리고 원자력 여성모임 회원들은 서울 명동 일대와 각 협의회별로 부산, 인천, 대전, 천안, 춘천 시내 주요거리에서 원자력발전 홍보 팸플릿 등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원자력발전이 IMF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원임을 널리 알렸다.